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

과장 전창현, 사무관 김세필
(044-200-2346, 2348)

이낙연 국무총리, 국가안전대진단 불시 현장점검

- 경기도 안양시 소재 쇼핑몰 시설, 의왕시 소재 중소형병원 등 안전점검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6일(화) 오후, 경기도 안양시와 의왕시 일대에 위치한 쇼핑몰과 중소형 병원을 불시에 방문하여,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.

* 참석 : 행안부 안전정책실장(김석진),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(이재열) 등

○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사회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,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'15년부터 매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

○ 지난 2월 5일에 시작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3월 30일 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나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4월 13일 까지 연장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.

* 2018 국가안전대진단(2.5-4.13) : 총 298,580개소 점검(위험시설 6만개소 집중 점검)

□ 이 총리는, 먼저 경기도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, 안양소방서장 및 의왕소방서장으로부터 오늘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받고,

○ 올해의 국가안전대진단은 대상시설은 줄이고 점검기간은 늘린 만큼, 책임감을 갖고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해 제대로 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- 이후, 도심에 위치한 **종합쇼핑몰과 중소형 병원**을 찾아 해당 건물의 소방·전기·가스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. 이번 점검에서는 ‘**방화셔터 작동불량**’, ‘**복도내 상품적치로 인한 피난통로 미확보**’, ‘**지하층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**’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현장에서 시정요구 했습니다.
- 점검을 마친 이 총리는,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흠이 생긴다면서, **안전에 관해서는 상시 점검한다**는 태세로 **민간, 지자체,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**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- 오늘 현장점검에 앞서, 이 총리는 지난 2월 2일에 전국 지자체 및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를 개최하여, 올해 「국가안전대진단」에 △점검 실명제, △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및 △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

※ (붙임) 국가안전대진단 개요

□ 국가안전대진단 개요

-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·개선하고자,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'15년 도입
 - 매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, 국민의 안전신고·제안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 → 지난 3년간 총 192만개소 점검.위험요인 개선(5만개소 현지시정, 7만개소 보수·보강 등)

□ '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경과

- 제천·밀양화재 계기, 국무총리 지시('18.1.28)에 따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완('18.2.2, 국무총리 주재 지자체장 영상회의)
 - * '18년(2.5-3.30), 30만개소 점검(위험시설 6만개소, 일반시설 24만개소) : ①안전 점검 실명제 및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, ②점검결과 대국민 공개, ③지자체 역할 책임 강화(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)
- 중소형 병원, 다중이용시설 등(6만개소)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, 점검기간 2주간 연장('18.2.25, 행안부)